

울산 천전리 암각화 명문 자료의 판독 및 해석

강종훈(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 I. 머리말
- II. 새롭게 판독하거나 고쳐서 판독한 부분
- III. 천전리 암각화 명문자료의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국보 1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울주 천전리각석’ (이하 울산 천전리 암각화로 지칭)은 청동기시대 이래의 암각화와 삼국시대 이후 새겨진 명문이 어우러져, 미술사와 고대사 전공자 모두에게 유명한 유적이다. 최근에 정밀 실측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본 발표자는 거기서 명문의 새로운 판독 및 해석의 집필을 담당한 바 있다.¹⁾ 새로운 판독은 서경문화재연구원 장명수 원장이 전사실측 방식으로 제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판독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확인한 것들이 다수 있고, 이전에 행해진 판독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들도 적지 않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글자들을 확정하게 된 것도 꽤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밀 실측 조사 결과 보고서의 발간이 천전리 암각화 명문 자료의 연구에서 지니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금번 보고서를 통해 새롭게 판독이 이루어진 것들과 기존의 판독과 달라진 부분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여지껏 논란이 되었던 글자들 가운데 확정을 보게 된 것들을 거론하여 향후 명문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명문을 소개할 때는 편의상 보고서에서 부여한 번호(1~204)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II. 새롭게 판독하거나 고쳐서 판독한 부분

천전리 암각화 명문에 대한 판독은 금번 보고서(이하 ‘2014 보고서’로 칭함)에 앞서 대략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²⁾ 기존의 판독 가운데서는 2003년에 간행된 『국보 제147호 천전리각석 실측조사 보고서』(이하 ‘2003 보고서’로 칭함)의 판독이 가장 정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금번 보고서는 거기서도 누락된 것들을 포함하는 등 더욱 세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2003 보고서의 판독과 대비하여 추가되거나 달라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타 기존의 판독들과의 차이를 덧붙여 설명하는 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1) 전호태 외, 2014, 『울산 천전리 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 황수영, 1972, 『금석유문』, 한국미술사학회; 1999, 『금석유문』(황수영전집 4), 해안.
황수영·문명대, 1984, 『반구대암벽조각』, 동국대.
임창순, 1984, 『한국금석집성 1』, 일지사.
허흥식, 1984, 『한국금석전문』(고대), 아세아문화사.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한국선사미술연구소, 2003, 『국보 제147호 천전리각석 실측조사 보고서』, 울산광역시.

자 한다.³⁾

먼저 명문 1부터 살펴보면, 2014 보고서에서 ‘金郎口行碧口’로 판독하였는데, 2003년 보고서에서는 ‘金口(目?)(屏?)行碧口’로 판독하였다. 세 번째 글자는 현재 거의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⁴⁾ 반면에 마지막 글자는 ‘口’로 확실하게 파악된다. ‘口’는 명문 21과 125, 184 등에서도 말미에 보이는 것으로서, 자의상으로는 문맥상으로는 새길 ‘刻’자의 약자로 판단된다. 발표자는 2014년 보고서에서 명문 1을 ‘金郎口이 행차하여 碧(壁)에 새기다’로 해석하였다.⁵⁾

명문 11은 흔히 ‘개성 3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일신라시기 민애왕 1년에 해당하는 개성 3년(838) 무오년에 작성된 것으로, ‘開成三年戊午三月一日文巖見口口口典來之’로 판독된다. 해석은 ‘개성 3년 무오년 3월 1일에 文巖(글이 새겨진 바위)을 보러 口口口(또는 ~에서) 오다.’로 해 볼 수 있다. 2003 보고서에서는 文巖 다음의 글자를 미상자로 처리하면서 혹시 ‘值’가 아닐까 추정하였는데, ‘見’으로 확실하게 판독된다. 見 다음의 글자는 2003 보고서에서 ‘場’으로 판독하였지만, 원래의 글자 위에 다른 글자가 덧새겨지면서 무슨 글자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의 ‘口口典來之’는 2003 보고서에서는 ‘口川典夫之’로 판독하였고, 그 이전의 여러 판독문에서는 ‘化看夫之’ 또는 ‘口化口木之’ 등으로 처리했지만, 뒤의 세 글자는 ‘典來之’가 분명해 보이고, 앞의 두 글자는 자형은 남아 있으나 무슨 글자인지 판별이 어렵다. ‘來之’에서 ‘之’는 문장의 종결사로서, 6세기 전반에 작성된 이른바 ‘原名(명문 123)’과,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인명의 끝에 존칭 어미 ‘智’가 들어가 있음을 감안할 때 대략 중고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 113에서도 그 용례가 확인된다. ‘典’은 인명의 마지막 글자일 수도 있고, 『삼국사기』 직관지에 많이 보이는 중앙 관서로서의 ‘典’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문 15는 2014 보고서에서 처음 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口口里娘?徒見刻?字?’로 파악된다. 네 번째 글자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만약 ‘娘’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면, 이는 진흥왕대 화랑도 설치 이전에 존재했던 ‘源花’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낭도와 연관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향후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명문 21은 기존에 ‘僧徒于口’ 또는 ‘慕谷僧徒于口口口’ 등으로 부분적인 판독만 이루어졌던 것인데⁶⁾, 2014 보고서에서는 ‘三月七日 暮郎徒于此?口’로 좀 더 완전한 판독을 행할 수 있었다. 해석은 ‘3월 7일에 暮郎의 무리가 이곳에 (와서) 새기다.’ 정도가 된다. 기존의 판독에서는 ‘徒’ 앞 ‘郎’을 ‘僧’으로 오독하여 마치 ‘승려’의 무리가 온 것처럼 파악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암각화의 다른 명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화랑’의 무리가 온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명문 22는 ‘朴口(兮?)法師’로 판독되는데, 2014 보고서에서 처음 판독된 글자들이다. 명문 28은 ‘丙戌’이라는 간지로 파악되는데, 2003년 보고서에서는 ‘丙女’라고 전혀 다르게 판독하였다.

명문 31은 ‘乙未九月五日道安口 春談道權伊就等隨’로 판독된다. 2003 보고서에서는 ‘乙未九月五日道安兮? 春談道權伊口寺口(隨?)’로 판독하였는데, 첫 행에 나오는 인명은 ‘道安’임이 확실하고, 둘째 행의 마지막 세 글자도 ‘就等隨’로 분명하게 파악된다. 첫 행의 마지막 글자는 기존의 판독에서 대부분 ‘兮’로 보았으나, 현재 확인되는 자형은 ‘号’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을미년 9월 5일에 道安이 불러서[口] 春談과 道

3) 허용된 지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사소한 사례들, 예컨대 명문 2이나 9의 ‘大’처럼 고립적으로 나타나는 글자들에 대해서는 새로 판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언급을 생략한다. 자세한 것은 2014 보고서의 64~9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4) 황수영, 1972, 『금석유문』에서 ‘金郎屏行碧口’로 판독한 이래 『한국금석전문』(이하 『금석전문』으로 약함)과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이하 『역주 금석문』으로 약함)에서 그대로 따랐고, 『반구대암벽조각』(이하 『반구대』로 약함)에서는 마지막 글자를 ‘片’으로 읽었으며, 『한국금석집성』(이하 『금석집성』으로 약함)에서는 세 번째 글자를 미상으로, 네 번째 글자는 ‘枉’으로, 마지막 글자는 ‘乃’로 판독하였다.

5) 판독불능자인 세 번째 글자는 문맥상으로는 ‘徒’일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독을 자제하였다.

6) 『금석유문』, 『반구대』, 『금석전문』에서는 ‘僧徒于口’로, 『역주 금석문』에서는 ‘慕谷僧徒于另口口’로 판독하였다. 참고로 2003보고서에서는 ‘于正口’으로만 판독하였다.

權, 伊就 등이 따라오다.’ 정도가 될 것이다.⁷⁾

명문 36은 2014 보고서에서 새로 판독이 이루어진 것인데, ‘柳?共 遍世一 / 里負高郎徒’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負高郎’이라는 화랑의 무리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명문 43 역시 새로 판독된 것으로, ‘□□五十里屏風?石 新器? 崔海皙’으로 파악되며, 신라 때의 명문들과 비교할 때 서체상으로 보나 刻字의 형상으로 보나 그리 오래된 명문 같지는 않다.

명문 45는 흔히 ‘계해명’이라고 불려온 것으로, 2003 보고서에서는 ‘癸亥年二月六日 沙口孝?智小舍 婦非德 行時書’로 판독하였으나, 2014 보고서에서는 ‘癸亥年二月八日 沙喙口凌智小舍 婦兆德刀遊 行時書’로 판독하였다. 남아 있는 자형상 날짜는 6일이 아니라 8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고, 둘째 행의 두 번째 글자는 ‘喙’임이 분명하다. 종래 이 글자는 ‘탁’이라고도 읽고 ‘훤’라고도 읽었으나, 12세기 초에 고려에 사행을 온 송의 사신 孫穆의 저술 『鷄林類事』에 ‘雞曰喙’라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말 ‘닭’을 표기하기 위해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한 한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행에 나오는 인명의 첫 글자는 종래 모든 판독에서 ‘非’로 파악하였지만, 확인되는 자형은 ‘兆’에 더 가깝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계해년 2월 8일에 (신라 6부 가운데 하나인) 사담부의 口凌智 小舍의 부인인 兆德刀가 놀러왔을 때 쓰다.’ 정도가 된다. 여기서의 계해년은, 서체와 관등 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진흥왕 4년 즉 서기 543년으로 추정된다.

명문 51은 그동안 ‘상원 2년명’으로 알려져 오면서 각양의 판독이 제시되었으나, 2014 보고서에서는 ‘上元二年乙亥正月廿日加具見之匕也大阿干 卅八口口’으로 판독하였다. 상원 2년 을해년은 신라 문무왕 15년인 서기 675년인데, 이 해 정월 20일에 비야 대야간이라는 인물이 와서 본 것을 기념하여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뒷부분의 ‘卅八’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그의 나이를 적은 것일 수도 있고 그를 수행한 인원의 숫자일 수도 있다. ‘加具見之’는 ‘가서 보다’의 향찰식 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존의 판독에서는 대부분 대야간의 이름에 해당하는 글자를 ‘也’ 하나로만 파악했지만,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之’와 ‘也’ 사이에 ‘匕’가 끼어서 새겨져 있어, ‘匕也’를 인명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겨진다.

명문 68은 ‘을축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동안 앞부분(대체로 3행까지)은 비교적 분명하게 판독이 이루어졌지만, 중간 이하 부분은 풍화 등으로 인해 글자의 판별이 매우 어려워,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명문에 해당한다. 지금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으나, 2014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독문을 제시하였다.

乙丑年九月中沙喙部于西
夫智彼玆干支妻夫人阿刀郎女
谷見來時前立人威?女礼
兄喙?□酒?□□□悉工赴?
里□□□□奔次道?□
三壺?□□迄□心麥夫智在
王?□ 枕宿夫正沘世□
春夫之世□一輩三蕪和
仇丈□大爲 小王二人心未
小老

여기서 을축년은 진흥왕 6년에 해당하는 서기 545년으로 추정되는데, 6행 말미부터 7행 초두에 걸쳐 ‘心麥夫智在王?’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심맥부는 바로 진흥왕

7) ‘号’를 다음 행의 첫 글자인 ‘春’과 연결시켜, ‘道安과 号春, 談道, 權伊就 등이 따라오다.’로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본다면, ‘權’이 성으로 사용된 사례가 되니, 이 명문의 작성 시기는 대체로 고려시대 이후가 될 것이다.

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명문의 전체 내용은 대략 ‘을축년 9월에 사담부의 우서부지 파진간지의 처인 아도랑 녀 부인이 골짜기를 보러 오실 때, 앞에 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일이 있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기존의 판독과 해석에서는 첫째 행의 끝 글자인 ‘西’ 아래에 다른 글자가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그 행 중간 부분부터 둘째 행 윗부분까지를 ‘沙喙部干 西口夫智 彼玆干支’로 판독하면서, ‘사담부의 干’인 서口부지 파진간을 거명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西’ 아래에 다른 글자는 보이지 않으며, 그 앞의 글자도 ‘干’ 보다는 ‘于’에 가까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부체제가 사실상 형해화된 진흥왕대 초반에 ‘사담부의 (대표자로서의) 干’이라는 표현은 상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둘째 행 말미의 ‘夫人阿刀郎女’를 ‘부인인 아도랑과 딸’이라고 본 견해도 있지만⁸⁾, 만약 딸이 동행했다면 그 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谷見來時’는 ‘골짜기를 보러 오실 때’를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을축명보다 앞서 작성된 이른바 ‘原銘’이나 ‘追銘’에서도 나타나는바, 당시 한문 구사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명문 76은 박스를 치고 그 안에 글자를 새긴 것으로, 2003 보고서에서는 ‘口口年僧口(律?)十?’으로 판독하였는데, 현재 확인되는 상태로만 본다면 ‘日王七年僧徒上’으로 판독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첫 글자 ‘日’ 위에 글자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여지가 있다. 또 ‘日’은 명문이 새겨진 중심선을 기준으로 볼 때 좌변에 치우쳐 있어, 본래는 日을 좌부로 하는 다른 글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애초에 새겨진 것은 ‘口口王’이었다는 말이 된다. 신라의 왕들 가운데 재위 기간이 칠년 이상이면서 그 이름의 두 번째 글자에 日이 좌부로 들어가는 인물로는 두 명이 확인되는바, 사서에 ‘政明王’이라고도 나오는 神文王⁹⁾과 ‘清明’이라는 이름을 지녔던 哀莊王이 그들이다. 신문왕과 애장왕은 모두 시호이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재위하던 기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명문 76에서 언급된 ‘日王’은 이들 중 한 명을 가리키는 당시 호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명문에서는 다른 명문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干支나 당의 연호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신라왕의 재위 연도만 표시했다는 점이다. 8세기 이후에 작성된 명문들에는 대부분 당의 연호와 간지가 나타남을 감안할 때, 이 명문은 9세기 전반의 왕이었던 애장왕보다는 7세기 후반, 즉 나당전쟁 이후 당과의 관계가 아직 경색 국면에 있을 때인 신문왕 대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작성 시기는 신문왕 7년인 서기 687년이 될 것이다.

명문 97은 ‘상원 4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上元四年十月廿四日夫十坪宅猪塢永工’으로 판독된다. 2003 보고서에서는 ‘上元四年十月廿四日夫木口(庠?)口(茂?)猪馬’로 해독하였고, 그 이전의 다른 책들에서도 각기 다양한 판독문을 제시하여, 명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앞부분의 연호를 ‘正元’이라고 보기도 하였으며(『금석유문』과 『반구대』), 월일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는 ‘夫沐井嬢在’(『금석유문』, 『반구대』, 『금석전문』), ‘夫汁坪宅猪爲’(『금석집성』), ‘夫米?坪宅猪’(『역주 금석문』) 등으로 읽었는데, 2014 보고서에서는 연호의 경우 ‘上元’으로 재확인하였고, 후반부의 경우는 ‘夫十坪宅猪塢永工’으로 판독하여, 기존에 읽지 못했던 글자들까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해석을 하자면, ‘상원 4년(677) 10월 24일에 夫十坪宅의 猪塢 공사를 마치고 (오다)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夫十坪宅’은 이른바 ‘金入宅’처럼 진골 등의 높은 신분이 소유한 저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猪塢’는 말 그대로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장소를 뜻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명문은 통일전쟁기 신라 지배층의 경제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향후 이 방면 연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명문 98은 ‘辛亥年九月 圭陪月朗 成三人’으로 판독되는바, 그 의미는 ‘신해년 9월에 규배, 월랑, 길성 세 사람이 (오다) 가 되겠다. 기존에는 ‘九月’ 다음에 ‘日’자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금석유문』, 『반구대』, 『금

8) 『역주 금석문』, 167쪽.

9) 『삼국사기』약지에 인용된 ‘古記’에 ‘政明王’이라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소제 駕洛國記에도 ‘新羅第三十一政明王’이라고 나온다.

석전문』), 분명하지 않으며, 2003 보고서에서는 ‘辛亥年’ 앞에 ‘口土’가, 뒤에 ‘九’가 있다고 파악하였지만, 역시 확실하지 않다. 또 ‘圭陪月朗吉成三人’을 그동안 ‘圭陪朗者灾’(『금석유문』, 『반구대』, 『금석전문』), ‘圭陪明守成二人’(『금석집성』), ‘圭陪朗者?咸?三?人’(『역주 금석문』), ‘善部月郎者成步人’(2003 보고서) 등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보아서는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신해년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 불확실하여 명문의 제작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체나 인명 등을 감안하면 일단 고려 이후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신라 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명문 112는 ‘追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명문 123(原銘)과 더불어 천전리 암각화의 전체 명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문으로 꼽힌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판독과 해석이 시도되었으며, 본 발표자 역시 독자적인 견해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¹⁰⁾. 2014 보고서의 판독문은 본 발표자가 前稿에서 판독한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반복하여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3행 중간 부분에 나오는 ‘口口十八口口’를 前稿에서는 ‘口口八口年’으로 읽었던바, ‘八’ 앞의 글자는 ‘十’에 가깝고 대신 마지막 글자는 ‘年’ 인지가 불확실하여, 판독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명확한 판독이 힘든 상태라는 것이 안타깝다.

명문 113은 ‘六叶夫智大一行作文之’로 판독되며, ‘육협부지 대일~이 행차하고 글을 짓다.’로 해석된다. 2003 보고서에서는 ‘夫智大行作文’만 판독하였고, 그 밖의 책에서는 앞부분 인명의 두 번째 글자를 ‘口’, ‘叱’, ‘吩’, ‘𠄎’ 등으로, 마지막 글자 ‘之’를 ‘二人’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인명의 두 번째 글자는 자형이 완벽하게 남아 있지 않아 재판독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우변에 들어간 글자의 가로획은 뚜렷하게 확인되며, 마지막 글자는 문장의 종결사로 쓰인 ‘之’임이 확실하다.

명문 119는 2003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거기에서는 ‘口寅年四月口日’으로만 판독되었으나, 2014 보고서에서는 간지의 첫 글자를 ‘庚’으로 판정하였다. 작성 시기가 분명하지 않기는 하지만, 간지가 들어간 명문이 하나 더 확실하게 추가된 셈이다.

명문 123는 그동안 ‘原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으로, 명문 112(追銘)과 세트를 이루면서 분량의 측면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천전리 암각화 명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본 발표자 또한 판독문과 해석문을 별도로 제시한 바 있는데¹¹⁾, 2014 보고서에서의 판독과 해석은 본 발표자가 기존에 내놓은 것과 큰 차이는 없다. 본 발표에서는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생긴 것이나 확정을 보게 된 것들만 언급하고자 한다.

넷째 행의 세 번째 글자, 즉 ‘古口無名谷’에서의 미상자를 기존 판독에서는 ‘谷’이라고 보았으나, 현재 확인되는 자형으로는 ‘谷’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2014 보고서에서는 일단 미상자로 처리하고, 혹시 ‘來’자가 아닐까 의심을 해두었다. 물론 의미는 기존처럼 ‘오래된 골짜기인데 이름이 없는 골짜기였다.’나 ‘옛날부터 이름이 없는 골짜기였다.’나 큰 차이는 없다.

다섯째 행의 첫 글자는 기존에 疊字를 뜻하는 ‘彳’로 파악하였으나, 지금 나타나는 형태로는 ‘記’에 가까워, 단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제시해두었다.

여섯째 행의 다섯 번째 글자는 그동안 ‘麗’와 ‘聖’으로 판독이 갈렸는데, 이번 조사의 결과 ‘聖’임이 확실해졌다. 여섯 번째 글자 역시 ‘德’, ‘慈’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역시 2014 보고서를 통해 ‘德’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과 뒤에 이어지는 글자들을 묶어서 보면 ‘聖德光妙於史鄒女郎’이 되는데, ‘성스런 덕이 빛처럼 오묘한 어사추여랑’으로 해석되며, 명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어사추여랑을 찬미하는 내용이 된다.

명문 125은 ‘병신명’으로 알려진 것으로, 이번 2014 보고서에서는 ‘丙申載五月七 慕郎行賑(賦?) 道台造(口?)’으로 판독하였다. 2003 보고서는 ‘丙酉口(丙?)五月卜 慕外口 道已二具’로 읽었으며, 그 이전의 책들에서는

10) 강중훈, 1999, 「울주 천전리서석 명문에 대한 일고찰」, 『울산연구』 1, 울산대 박물관.

11) 뒷논문.

첫째 행의 월일 부분을 모두 ‘五月十一日’로, 둘째 행의 마지막 글자를 ‘賜’로, 셋째 행을 ‘道谷耒造作’(『금석유문』), ‘道谷來造作’(『반구대』, 『금석전문』), ‘道谷兄造作’(『역주 금석문』) 등으로 파악하였다. ‘丙酉’라는 간지는 아예 없기 때문에 2003 보고서의 판독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드러난 자형에만 구애된 결과 명문의 맥락을 소홀히 하였다고 여겨진다. 첫째 행의 월일 부분의 마지막 글자는 현재 상태로는 ‘七’만 확인되며, 기존의 판독에서처럼 ‘十一日’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행 마지막 글자는 좌변의 ‘貝’는 확실하나 우변이 ‘易’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글자 모양 상으로는 분명 ‘辰’ 또는 ‘武’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慕郎이라는 화랑이 ‘진흙’ 등을 가는 길에 들렀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데,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행의 두 번째 글자는 대부분 ‘谷’으로 읽어왔으나 ‘谷’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뒤의 ‘造’ 앞에는 다른 글자가 확인되지 않아 ‘耒’, ‘來’, ‘兄’ 등이 따로 들어 있다고 파악한 기존의 견해들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마지막 글자도 지금까지는 모두 ‘作’으로 파악하였지만, 현재 확인되는 자형상으로는 무리한 견해이다. 2014 보고서에서는 전체 맥락을 감안하여 ‘日’일 가능성을 타진하였는데, 역시 향후 더욱 면밀한 고찰이 요망된다.

명문 161은 ‘을묘명’으로 불리는데, ‘聖法興大王’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 그동안 법흥왕대 왕권의 고양을 보여주는 중요 사료로 취급되어 왔다. 명문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으로, 기존의 판독문들이 서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2014 보고서에서 확정하거나 새로 판독한 글자들이 몇 개 있는바,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행에서는 연월일을 밝힌 ‘乙卯年八月四日’ 부분의 마지막 글자 ‘日’이 애초에 빠졌다가 행의 오른쪽으로 비껴난 곳에 추적한 것이 확인된다. 둘째 행에서도 ‘比丘僧’의 첫 글자 ‘比’가 다른 글자들보다 작게 끼어들어가 새겨졌는데, 이 역시 처음 새길 때 빠뜨렸다가 補刻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 행의 첫 글자는 미상자로 처리되거나(『역주 금석문』 및 2003 보고서) ‘知’(『반구대』), ‘先’(『금석집성』), ‘多’(『금석전문』) 등으로 다양하게 읽혔으나, 2014 보고서에서는 ‘六’자일 가능성을 새로 제시하였다. 남아 있는 글자의 형태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六’자를 새길 자리에 ‘人’을 잘못 새겼다가 수정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할 경우, 명문 전체의 해석은 ‘을묘년(535) 8월 4일 성법흥대왕 때에 도인 비구승 안급이와 사미승 수내지, 거지벌촌의 衆士 여섯 사람 등이 보고 기록하다.’ 정도가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부각되어 있지만, 법흥왕대 불교 공인이 이루어지고 몇 년 지난 시점에서 승려와 신자들이 활동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명문 178은 ‘계사명’으로 지칭되어 온 것인데, 계사년을 지증왕 14년에 해당하는 514년으로 비정하여, 천전리 암각화의 전체 명문 가운데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명문의 하나로 추정해 온 것이다. 얇고 가늘게 새겨진 탓에 명문이 잘 남아 있지 않아 판독 및 해석이 어렵지만, 2014 보고서에서 기존의 판독문들과 다르게 파악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머리의 간지는 ‘癸巳’임이 확실한데, 첫 글자 ‘癸’가 이체자로 쓰여서 간혹 ‘美’(『반구대』), ‘亥’(2003 보고서) 등으로 오독되기도 하였다. 간지에 ‘美巳’나 ‘亥巳’가 없음을 감안할 때, 억지로 자형에 가깝게 읽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준다.

둘째 행은 지금까지 2003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판독문에서 ‘沙喙’이라고 파악하였으나, 현재 확인되는 것은 ‘喙’일 뿐, 그 위에 어떤 글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2014 보고서에서는 그냥 ‘喙’으로만 판독하였다.

넷째 행은 ‘夫人輩衆大等’으로 파악되는데, 기존에는 ‘眞興大等’(『금석유문』, 『반구대』, 『금석전문』), ‘春華中大等’(2003 보고서) 등으로도 읽어왔다. ‘眞興大等’으로 읽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여러 논의들이 가능하겠지만, 실제와는 전혀 다른 판독이므로 향후 이를 토대로 무의미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부인의 무리[輩]와 여러 대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곱째 행과 여덟째 행에서는 ‘尠小知’와 ‘豆篤知’라는 인명 뒤에 아마도 관등으로 보이는 ‘大兄加’라는 단어가 거듭 보여 주목된다. 기존의 판독에서는 『역주 금석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大兄’만 읽거나 아예 읽어

내지 못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자형으로 볼 때 ‘大兄加’가 두 행에 걸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분명하며, 향후 그 성격에 대해 보다 깊은 천착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명문 179은 ‘갑인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4 보고서에서의 판독은 그동안 대부분의 책에서 제시한 판독과 다를 바 없이 ‘甲寅大王寺中 安藏許作’인데, 2003 보고서에서는 첫 행의 ‘中’을 ‘巾?’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巾’의 아래 가로획이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굳이 ‘巾’이라고 읽어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명문 184은 ‘개원 12년명’으로 불리는바, 2014 보고서에서는 ‘元十二年甲子四月十一日喙奪?毛!’로 판독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책에서 첫 글자 ‘元’ 앞에 ‘開’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 ‘開元十二年甲子’로 파악하였는데, 실제로 신라인들에 의해 명문이 새겨진 6~10세기에 중국에서 사용된 연호 중 12년이 갑자년에 해당하는 것은 開元밖에 없으므로, 올바른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명문에서는 ‘開’가 보이지 않아, 2014 보고서에서는 일단 위와 같이 판독한 것이다.

연월일 다음에 이어지는 뒷부분은 기존에 ‘口口毛勺’(『금석유문』, 『금석전문』), ‘阿文斗毛行’(『반구대』), ‘喙口毛斤’(『금석집성』) 등으로 판독하기도 하였으나, 이번 조사 결과 ‘喙奪?毛!’로 좀 더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해석은 ‘닭부의 奪毛가 새기다.’ 정도로 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울산 천전리 암각화의 명문 가운데 새로 판독하거나 고쳐서 판독한 부분들을 소개하였다. 인명만을 적은 단편적인 명문들은 대체로 생략하고, 비록 짧더라도 문장을 이루는 것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독문과 해석문을 제시하였다. 이제 장을 바꿔서 암각화의 명문들을 실제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하려 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Ⅲ. 천전리 암각화 명문 자료의 특징

천전리 암각화의 명문은 신라시대로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다. 이들 가운데 연구자들 사이에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료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들은 대부분 작성 시기가 올라가는 신라 중고기의 명문들이다. 법흥왕대에 작성된 原銘(명문 123)과 追銘(명문 112)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밖에 계사명(명문 178)이나 을묘명(명문 161), 을축명(명문 68), 계해명(명문 45) 등이 6세기에 새겨진 귀중한 자료들이다. 그렇지만, 이들 외에 통일신라시기에 만들어진 많은 명문들도 신라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나름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

신라 때의 명문을 포함하여 천전리 암각화 명문은 거의 대부분이 이곳에 놀러온 사람들이 기념으로 새긴 것들이다. 왕족을 비롯한 신라의 최고 지배층과 화랑, 승려 등이 몸소 왔다간 사실을 몇 줄의 내용으로 기록하거나 최소한 자신들의 이름을 간략하게라도 새겨놓았다. 그리고 이들이 적어놓은 것을 본 후대인들이 그것을 본 때 또 자신들의 이름이나 문구를 써넣었던 것이니, 사실상 천전리 암각화의 명문은 천수백년을 거치면서 축적된 일종의 ‘방명록’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처럼 천전리 암각화의 명문 자료는 장구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여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바로 그런 특징으로 인해 사료로 이용하려 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럿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낙서가 많다는 점이다. 명문 10, 20, 37, 38, 39, 41, 87, 96, 143, 148, 158, 186, 191, 193, 194, 197, 198 등 도대체 글자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울러 정식으로 명문을 새기기에 앞서 연습 삼아 글자를 새겨본 것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낙서로 분류된 것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예들이 다수 있겠지만, 글자가 하나나 둘 고립되어 새겨진 것들(명문 2, 3, 6, 7, 8, 9, 12, 13, 16, 18, 19, 26, 27, 29, 32, 33, 40, 42, 44, 47, 52, 55, 57, 58, 59, 63, 64, 65, 70, 74, 75, 78, 79, 80, 81, 82, 89, 90, 91, 92, 94, 99, 100, 102, 103, 108, 109, 110, 114, 117, 120,

122, 124, 126, 127, 130, 131,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6, 149, 151, 152, 153, 154, 155, 159, 160, 162, 164, 165, 168, 169, 170, 172, 173, 174, 177, 181, 182, 183, 185, 187, 189, 190, 195, 196, 199, 200)이나 온전한 글자가 아니라 좌변 또는 우변 등 글자의 일부만 새겨진 것들(명문 156, 166, 167, 171, 204)은 이러한 습작의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낙서나 습작은 일반 명문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판독과 해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명문 116을 보면, 정상적으로는 ‘壬午年六月十日壽?鴉?’로 판독되고 ‘임오년 6월 10일에 壽?鴉?’가 (오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六’자와 ‘月’자의 아래에 각각 조그맣게 ‘口’와 ‘沃’이 들어가 있어 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이 두 글자는 당연히 원래의 명문과는 상관없이 낙서로 들어간 것일 텐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상태에 구애되어 판독을 하게 되면, ‘壬午年六月天十日’(2003 보고서)과 같이 엉뚱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유사한 사례로, 글자를 잘못 새기고 그것을 지우지 못한 채 남겨두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명문 101을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는 ‘四月口十日’로 되어 있고, 미상자는 자형상 ‘七’ 또는 ‘十’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四月七十日’이나 ‘四月十日’로 판독될 수는 당연히 없다. 혹시 ‘二’나 ‘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숫자 표기의 관례상 이십이나 삼십은 ‘二十’, ‘三十’의 두 글자 씩이 아니라 ‘卅’, ‘卅’의 한 글자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명문에서의 미상자는 ‘十’을 새기다가 세로획의 아랫부분이 잘못 새겨짐으로 인해 폐기된 글자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천전리 암각화의 명문을 접할 때에는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판독과 해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천전리 암각화에서는 명문을 새기다가 글자를 빠뜨려 본래 행의 좌우나 글자들 사이에 다시 보입한 사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명문 51에서의 ‘匕’, 명문 98에서의 ‘月’, 명문 161에서의 ‘日’ 등이 그런 예에 해당하는바, 이 역시 명문의 판독과 해석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독 및 해석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점은, 현재 글자가 남아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구애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거론한 바 있듯이 명문 125의 ‘丙申’을 ‘丙酉’라고 판독하거나, 명문 178의 ‘癸巳’를 ‘亥巳’라고 읽는 것은 명문을 새긴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가 자의적인 판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명문의 판독과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을 중시하되 맥락에 들어맞는 합리적 이해임을 늘 되새겨야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최근 발간된 『울산 천전리 암각화』 보고서에서 새로 판독되거나 정정이 이루어진 명문 자료들을 살펴보고, 실제 연구에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 선인들이 남긴 자취라는 점에서도 소중하지만, 문헌 자료로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시대상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사료적으로 천전리 암각화의 명문 자료들은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앞으로 본 보고서에서 얻은 성과가 학계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발표자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명문 하나하나의 내용을 세밀하게 다루지는 못했으나, 따로 기회를 얻어 중요한 명문들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해 볼 생각이다.

